

한국의 화장실 사정



한국측 발표자
무림교역 이 상 정 회장

1. 한국 화장실 문화의 어제와 오늘

지난날의 속담에 「뒷간과 처가집은 멀리 있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

서양은 분노를 버렸는데 우리는 분노와 가축의 배설물을 퇴비로 쓰면서 악취와 비위생 속에서 농경문화의 전통을 이어왔다.

일본통치시대에 이르러 일본식 변소가 관공서나 학교에 보급되면서 그 이름도 “뒷간”에서 “변소”로 바뀌어 불리게 되었고, 그 당시 신축된 조선총독부, 관청, 특급호텔, 백화점등에 설치되었던 변소는 물통을 높이두고 줄을 당기면 물이 나오는 초기의 수세식이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후 주둔한 미국군과 유엔군의 영내에는 양식변기가 있었으나, 일반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폐허 위에 세워진 빌딩, 공공건물, 고급주택에서

부터였다.

6.25 동란의 휴전 후 수도 서울의 폭발적인 인구집중과 산업사회가 몰고온 60년대 이후의 도시 비대화 현상과 화학 비료의 보급으로 도시의 분노는 그 가치를 잃게 되어, 도시 기능의 재편과 더불어 분노수거 처리의 큰 혼란기를 겪기도 했다.

70년대 후반에는 공동주택이 서울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특히 아파트의 생활양식은 그토록 혐오했던 지난날의 변소를 욕조, 세면대와 같은 자리에 놓게 되는 화장실 혁명을 이룩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에는 공중화장실이 보기 드물었으므로 사상초유의 86아시아게임과 88서울올림픽이 이동식 화장실의 새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 당시에 신선한 충격과 함께 공중화장실의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무취, 상쾌, 청결의 화장실 위생의식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올림픽에 이어 '89년에는 카톨릭 성체대회, '93년의 대전국제박람회 '94 세계청소년 잼버리대회등 국내·외의 대소행사를 거치면서 이동화장실이 행사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아파트 세대의 증가와 더불어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공중화장실 문제가 더오르던 '90년대에 이르러 그 동안 화장실에 관한 말을 되도록 피해왔던 마스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기에 이르렀다. 유동성을 요하는 일시적인 장소에는 완전이동식으로 설치하고 등산로, 유원지, 도시변두리 같은곳에서 지하탱크를 매설한 준이동식을 설치하며, 특히 자연 친화적인 자연발효시스템이 도입되어 여러 곳에서 이용되고 있다.



▲ 과거 화장실의 개념과 오늘날 화장실의 개념은 많은 차이를 두고 있다.

이제 한국의 산, 강, 바다, 마을, 야외에서 사용하는 이동식은 고정식 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 때문에 더 넓고 큰 용도를 갖게 되었다. 도시의 공중화장실이 대부분 건축물이어서 대지확보가 어려워 증설이 더디었으나, 이제는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특별 시책으로 증설에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건축물이나 이동식 모두가 깨끗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욕구에 응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물청소보다 위생적인 관리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가장 더러운 곳 일수록 관리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용역관리에 맡기고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는 전문화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하에 늦어도 2~3년 안에는 여러면에서 개선될 줄로 믿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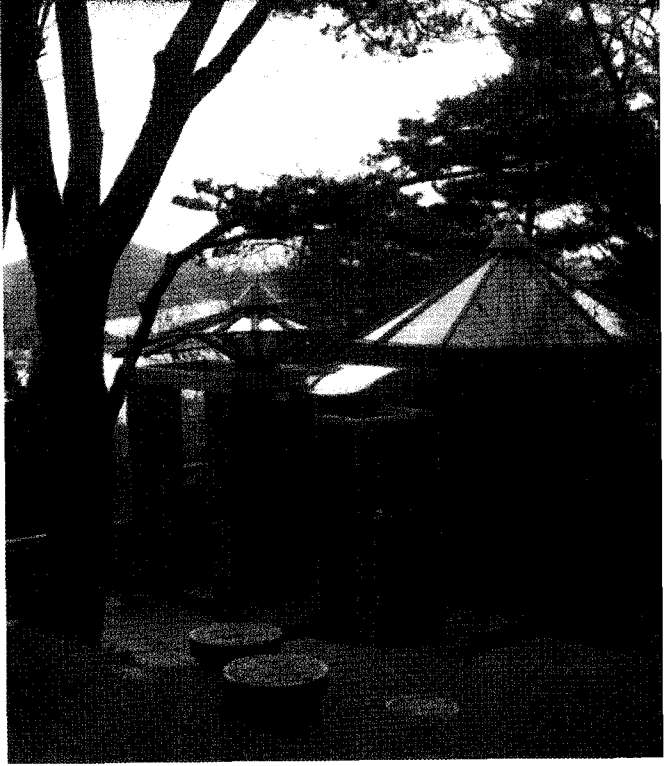
2. 한국 공중화장실의 현대화 운동

대도시의 빌딩, 호텔등 공공시설과 고급위생업소나 부유층은 화장실을 장식하여 안락한 문화공간으로 그 용도를 넓혀 가고 있지만 특히 내적이 아닌 공중화장실은 국제화, 세계화시대인 오늘에도 정책적인 조명을 일찍 받지 못한 탓으로 가장 뒤쳐진 분야로 꼽혀 왔다.

그러나 화장실 문화의 새 시대를 유도하는 저서나 논문과 관광지의 공중화장실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접해온 한국관광공사가 일찍이 마련한 <관광지의 화장실 개선 연구소>를 기초로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중화장실의 문제점과 시책을 검토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해 왔다.

특히 작년에는 관광공사가 전국의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Best 5와 Worst 5를 선정하여 시상, 홍보하므로써 화장실에 대한 당국과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1995년에는 내무부(현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에서도 시범 화장실 설치 계획과 공중화장실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2002년



월드컵대회 개최지인 수원시에서는 '97년부터 매년 1회「공중화장실 심포지움」을 열고 있다. 옛날 성곽안팎을 중심으로 도시화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성곽모형을 화장실 지붕으로 하고, 원통형에 칼라유리를 벽으로 하여 좋은 경관을 보면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클래식 음악과 꽃향기, 파우더 룸을 기본으로 책이나 잡지를 놓아두거나 새 소리를 들려주는 등 자연과의 조화와 환경 친화적인 완벽한 설비를 갖추어 시내, 공원, 등산로입구 등에 설치했으며, 그 밖에도 각종 시범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공공장소인 시장같은 곳에는 수원시가 비용의 50%를 부담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최근 관광공사와 더불어 기관, 단체, 기업과 독지가를 망라하여 의욕적인 「한국화장실 문화협의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 송파 자치구에서는 화장실과 휴게실을 나란히 세워 휴게실 수입으로 화장실 관리비를 조달하는 모범적인 첨단 화장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주부들로 발족한 「깨끗한 화장실 관리 시민 모임」이 추진하고 있는 거주지별 책임봉사도 성공적인 미담을 남겼으며 초등학교 순회 방문교육 특히 인근학교와 공중화장실을 연계하여 관리하게 하므로써 학생 교육과 사회 참여라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제 전국 각 지역마다 공중화장실의 정비,

미화, 신축에서부터 관리운영의 아이디어까지 선의의 경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을 통해 좋은 화장실의 추천이나 제안이 잇따르고 있어 온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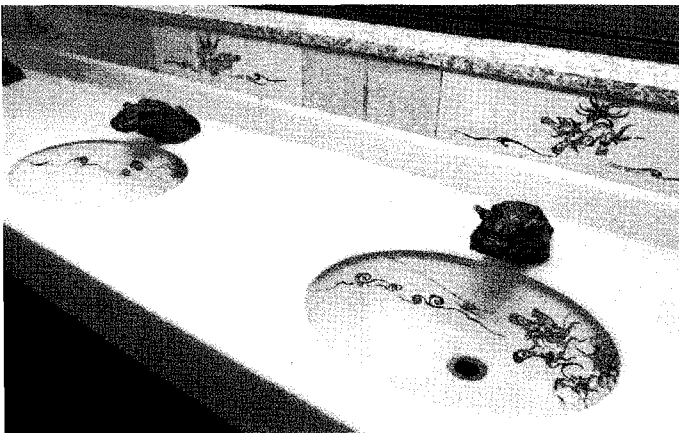
서울시에서는 화장실이 없는 변화가의 큰 길이나 도심지에 전자동 첨단화장실을 검토하는 한편, 시장 같은 곳에서는 인접한 건물의 개방과 공공건물이나 관허업소, 주유소의 상시개방도 경우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아래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표준설계를 공모하여 금년에는 31억을 투입하여 노후한 화장실 247개소 중 143개소를 정비하고 있으며, 5개 자치구에 25억원을 투입하여 기능성, 예술성, 편의성이 뛰어난 시범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설비면에서는 그 동안 갖추지 못했던 서양 문화권의 좌변기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건강한 사람과 어린 중심의 설비에서 장애인

(노약자)이나 어린이를 위한 설비와 Baby bed, 옷걸이, 선반, 거울등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위주로 설계된 구조에서 여성의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화장실 부스 배치가 이루어 지고 있다. 불편없는 설비, 설비기구의 고급화, 깨끗한 관리의 중요성을 모두가 공감하면서 이제는 화장실의 설치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시내 음식점과 유흥가등 약13만여 곳의 화장실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선사업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현장방문 조사결과에 따라 우수와 보통, 불량으로 등급을 매긴 뒤 화장실 개선을 희망하는 업소들에 대해 식품진흥 기금의 이자율을 현행 7%에서 3%로 대폭 인하해 용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수화장실 보유업소를 분기별로, 1,000개씩 선정해 위생점검을 면제해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우아한 외관과 자동세정 건조시스템을 갖춘 유료공중화장실을 만들어 외국인이 즐겨 찾는 동대문, 남대문, 인사동, 이태원 등지의 업소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관, 언론,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발족한 「월드컵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는 전국 시·도에 지역협회를 두고, “공중도덕 캠페인”과 “깨끗한 화장실 대상” 제도를 마련하고 제1차로 올해 10월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선정하여 새로운 화장실 문화 발전에 불을 붙이는 한편, 공중화장실을 위한 자원봉사 체제를 구축하여 의식 개선을 유도하면서 월드컵 개최 10개도시에 시민운동 교육센터를 개설하는 등 새로운 천년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는 해당 시와 회사, 관공서 등에서 연이어 행해지고 있어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